

지금 이 시점에서 조언해드리는 <경영조직론> 공부에 대한 조언 1

공인노무사 강00
(헌동차 합격/64.20)

※ 김유미 노무사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경영조직 공부방법론에 대한 원고를 부탁하셔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영조직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고 애증으로 침삭도 하고 있습니다.)

I. 2기 : 일주일 1회독 연습

2기 마지막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마찬가지로 전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즉, 3기 진입에 앞서 1주일 1회독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전략노트를 분량과 암기량,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① 개인·집단편을 네 파트(다양성~감정, 동기부여·학습, 집단~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의사결정), ② 조직편을 네 파트(조직이론, 조직구조, 조직구조의 설계, 조직문화·조직변화)로 나누었고, 하루에 개인·집단 한 파트, 조직 한 파트씩을 공부하여 4일 동안 1회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남은 3일 동안은 조직행동 개관 부분을 짧게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응시하고, 강의를 듣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2기에는 이미 단권화 교재에 형광펜 작업이 완료되었기에, 모의고사 응시 후 최고답안, 해설지 등을 참고하여 제가 놓친 키워드를 굵은펜으로 해당 주제 옆에 크게 써두어 해당 부분을 펼치면 바로 키워드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I. 2기 방학 : 동기부여·리더십·조직구조 설계 복습

2기 종료 후 3기 시작까지는 시간적 텀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 범위를 복습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공부가 덜 되었다고 느낀 부분을 위와 같이 선정하여 해당 파트만 반복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 때만 해도 슬프게도 100% 완벽하게 이해/정리/암기가 되지 않은 주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학 동안 이해를 끝낸다는 마음으로 공부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해보다는 머리에 구겨 넣는다는 느낌으로 정리하고 암기했습니다(암기를 하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III. 3기 : 백지복습 & 중요한 주제와 부족한 주제 구분하기

3기의 경우 일주일 기준 수업이 있는 2일을 제외하고 남은 5일 중 4일은 강의 계획서 상의 모의고사 범위를, 1일은 전 범위 중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이 때는 처음부터 책을 펼쳐놓고 무작정 읽기 보다는, 시험범위를 모두 백지복습(목차, 개념,

키워드, 도식)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책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3기 목표는 주제가 주어지면 기계적으로 목차가 떠오르고 키워드가 줄줄 읊어질 정도로 암기를 완성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스스로 암기가 이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느낀 시기는 시험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또한, 3기에는 교재에서 시험장에서 시험 바로 직전 1회독할 부분을 추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논탈을 했거나 암기가 미흡한 주제는 빨간색 인덱스로, 2~3기 강의에서 유미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주제는 노란색 인덱스로 교재 측면에 표시해두어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도 해당 부분은 짚을 내어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IV. 3기 이후 : 반복 반복 그리고 또 반복(1주일 1회독→1일 1회독)

3기 후반부에는 모의고사가 전 범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1주일 1회독 패턴에 어느 정도 적응됩니다. 이때 스피트를 점점 높여서 2일 1회독, 마지막 일주일만 개략적으로라도 1일 1회독을 반복하였습니다.

이 때는 손으로 백지복습해서는 그 많은 분량을 모두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헛갈리는 (주로 빨간 인덱스로 표시한 부분) 주제를 제외하고는 책을 덮고 모두 머릿속으로 빠르게 복습하고 목차 구성 및 도식 그리기만 간단하게 직접 손으로 쓰고 그려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정해놓은 범위를 모두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인덱스로 표시한 부분을 눈으로라도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V. 기 타

경영조직은 공부 방법을 쓰는 게 무색할 만큼 왕도가 없는 과목 같습니다. 0기부터 3기까지 읽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외우는 작업을 지겹도록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시험일입니다. 다만, 시험 시작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지루한 과정을 묵묵하게 계속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매주 일정량을 공부하고 현출해 보는 데에 의의를 두었고,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도 최고답안이나 고득점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은 경영조직만큼은 비교적 높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해설지와 최고답안은 키워드와 좋은 표현 등을 뽑아내는 용도로 활용하고, 단권화 교재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흐름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난 다음부터는 하루 목표 공부량만 채우면 억지로 공부를 더 하지 않았지만, 경영조직은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공부 시간을 늘렸습니다. 목표 진도를 다 나갔더라도 키워드를 하나라도 더 추가하고 현출하면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경영조직은 특별한 왕도가 있다기보다는 꾸준히 묵묵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지치지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조언해드리는 <경영조직론> 공부에 대한 조언 2

공인노무사 박00
(유예 합격 / 경조 62.50)

※ 김유미 노무사님께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부탁하셔서, 부족하지만 그간 공부하며 느꼈던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역시 마지막까지 경영조직론에 대한 불안이 컸지만, 결국 그 불안과 함께 끝까지 갔기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I. 2기 : 전략노트 구조화 + '출제자 시선' 연습

2기는 경조를 '이해에서 완전한 암기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차키워드노트를 단순히 읽지 않고,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배열했을까?", "이 목차 순서는 출제자가 문제로 낸다면 어떻게 연결할까?"를 계속 질문하며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유미쌤 강의에서 강조하신 표현, 출제 포인트 등을 노트에 ★ 표시하여 다시 읽을 때 '암기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2기 후반부에는 주차별 모의고사를 단순히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이 주제를 내가 구조적으로 말할 수 있나?"를 매일 자문하며 백지복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II. 2기 종료 ~ 3기 시작 전 : '불편한 주제' 집중 보완

2기 후반부터 머릿속에 "이 주제는 왠지 설명하려면 벅박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저는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불편한 주제'를 별도 노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예컨대 '조직구조의 원칙 vs 설계 요인'처럼 헷갈리는 주제, 또는 '강화 스케줄의 효과'처럼 개념은 아는데 적용은 어려운 주제를 집중 반복했습니다. 2~3일마다 짧게 쪼개서 복습하면서, 그 주제만큼은 "묻히지 않도록" 계속 다듬었습니다.

시험에 더 중요한 것은 있어도 아예 제껴도 될만한 안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덜 중요한 주제라도 최대한 보고 눈에 바르려고 노력했습니다.

III. 3기 : 모의고사-암기 연결 + 시험장 기준 정리

3기에는 '쓰는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매주 모의고사를 본 뒤, 오답 주제별로 목차·키워드·예시만을 다시 구성해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때 '답안지 전체'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핵심 구조만 외워서 종이에 다시 펼쳐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3기 중반부터는 '시험 당일 1회독용 자료 만들기'에 착수했습니다. 예컨대,

빨간색 인덱스 : 논점 흘리기 쉬운 주제

파란색 인덱스 : 반복 출제 주제

형광펜 : 암기 핵심 키워드

이런 식으로 교재 측면과 본문을 병행 표시하여, 3기 후반에는 시각적으로 회독이 빨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IV. 3기 이후 : 압축, 생략, 속도 → '선택적 현출'로

3기 이후에는 모든 걸 다 반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1회독은 불가능하더라도, 오늘 하루 0.5점만 끌어올리자"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예컨대 하루에 '약한 주제 3개'만 확실히 정리해도, 5일이면 15개, 실제 시험에서 한 문제만 더 잘 써도 3점 차이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도식만 그려보는 연습'으로도 충분한 주제가 있고, '개념어·용어만 입으로 되뇌이는 연습'만으로도 충분한 주제가 있습니다. 전체 회독보다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한) 선택적 현출"을 전략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V. 마지막 조연 : 경조는 결국, 끈기입니다

경영조직론은 늘 불안하고, 정리할 것도 많고, 성과도 느리게 보입니다. 하지만 '읽고 외우고 잊고 다시 외우는 과정'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경조의 절반은 이미 이긴 겁니다.

저는 실제 시험에서도 완벽하게 쓴 문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썼고, 키워드를 최대한 담았고, 문장 흐름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험 당일 가장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며, 지금처럼 하루하루 책을 덮지 않고 계속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이고, 결국 합격의 조건이었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마세요. 이 과목은 반드시 끝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 한 문단이라도 제대로 암기했다면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조직 과목의 시행착오와 공부 방향

1. 들어가며 : 과목 특성에 대한 인식

저는 2025년 제 3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경영조직론 과목에서 65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영조직론은 인사노무관리와 비교할 때, 사고력이나 응용력보다는 암기 수준이 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과목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의 구조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답안에서 요구되는 내용 역시 기본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반드시 고득점을 확보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보았습니다. 학습의 투입 대비 성과가 비교적 정직하게 나타나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수험 과정에서 '효자 과목'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시행착오와 인식의 전환

초기의 가장 큰 시행착오는 암기의 정확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론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부 표현까지 정확히 외우는 데에는 소홀하였고, 그 결과 답안에서 핵심 키워드가 빠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누락된 채 답안을 풍부하게 보이게 하려다 보니 정확한 개념에 근거하지 않고 내용을 비벼 쓴 듯한 답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경영조직론은 단순히 많은 분량을 길게 쓰는 과목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정확한 표현으로 재현할 수 있는지가 직접적으로 점수에 연결되는 과목이라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빠지는 부분이 있을까 불안하여 타 강사의 자료까지 함께 참고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암기 구조가 분산되면서 기존에 암기한 내용까지 흐려지고 정리가 더 어려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점은 자료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재를 완전히 소화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유미쌤 목차 키워드 교재를 중심으로 반복 암기에 집중하였고, 해당 교재만으로도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충분하였으며 오히려 넘칠 정도로 담겨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 학습 방향의 전환: 암기의 정확도와 암기를 전제로 한 확장의 필요

정확한 암기와 현출이 성적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깨달은 이후 학습 방향을 명확히 조정하였습니다. 개념, 중요성, 장단점, 비교 포인트 등 답안에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요소를 정확히 암기하는 데 집중하였고, 표현을 임의로 바꾸기 보다는 교재의 키워드와 서술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채점상 유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두문자는 목차 암기에만 활용하지 않고 특성, 장단점과 같은 세부 항목까지 모두 만들어서 적용하였습니다. 두문자는 시험장에서 답안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최대한 많이 따고 반복해서 현출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시험을 여러 번 치면서 느낀 또 하나의 특징은 경영조직론은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특A급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단순히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만 작성할 경우 무난한 답안은 될 수 있으나 눈에 띄는 답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예를들어 "개념과 특성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개념과 특성만 정리해서 쓰는 답안보다는 도식이 있다면 도식과 중요성, 장단점,

시사점, 관련이론 등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터치하여 추가로 작성한 답안이 점수가 더 잘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확장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암기가 전제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용을 확장하려 하면 오히려 논점이 흐려지고 답안 전체가 불완전해 보였습니다. 결국 경영조직론에서의 확장 서술은 암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가 충분히 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5. 마치며

경영조직론의 시행착오는 방대한 양에 겁을 먹어 대부분 정확히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와 감각으로 버티려 했던 점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를 돌아보면 모두 기본서 중심의 정확한 암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답안 작성이 가능해진 시점 이후였습니다.

지금 다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유미쌤 교재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암기하고 그 내용을 답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재현 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공부할 것 같습니다. 경조는 유미쌤이 자주 언급하시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표현대로 결국 한 교재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디테일 한 암기 싸움이 성적향상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판단되기에 이러한 방향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노무사 수석 합격자의 수험생활 팁

안녕하세요. 노무사 시험에서 운 좋게 수석으로 합격한 김유미 노무사님 수강생입니다(제32회). 약 2년의 수험 생활, 직장 병행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마지막 1, 2, 3기 전업 시절의 몰입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 김유미 노무사님의 인사/경조 강의를 수강하며 머리로, 마음으로 느꼈던 수험생활 팁을 공유드립니다.

[기수별 공부 방법]

1. 인사노무관리 (68.42점)

(1) GS1기 - '사고'하며 암기하기

GS1기는 시험 전 '그나마 여유가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하여 전투적으로 암기만 하기보다는 '핵심이 무엇인지', 각 파트의 중요성과 출제 의도를 주도적으로 생각하며 암기를 하려 했습니다.

수업(주말반 수업을 들었음)을 듣고 나면, 진도 나간 범위를 3번 복습했습니다. 이때 같은 방법으로 회독하기보다는 1회차에는 키워드에 줄을 치고, 2회차에는 백지 복습을 하고, 3회차에는 목차 형광펜 작업을 했는데요. 이로써 중요 키워드는 여러 번 반복하여 머리에 남기고, 마지막에는 목차를 보며 그 밑의 키워드를 떠올리며 집중력도 높이고 단권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와 같은 교수저도 읽고 중요한 부분만 인덱스를 붙인 뒤 시험 직전에 보기도 했습니다.

(2) GS2기 - 단권화 책&모고 암기 완성도 제고

이 시기 김유미 노무사님과 합격자분들에게 답안 작성 비결의 80%는 암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기를 잘 할수록 더 빠르게 '구성력 있는 답안'을 써 내려갈 수 있었기에 암기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려 했습니다.

암기 대상은 책과 모고 답안(보충 문제 포함)이었습니다. 이슈도 다른 부분과 동일한 비중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점점 없어지기에 손으로 쓰는 복습보다는 구두 복습을 활용했습니다. 대목차를 보면 중목차가, 중목차를 보면 소목차가, 소목차를 보면 본문의 80% 정도는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회독했습니다.

(3) GS3기 - 답안 퀄리티 높이기

2기와 마찬가지로 단권화 책과 모고 100% 암기를 목표로 회독을 진행하되, 답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결들였습니다. '이 파트가 출제되면 이걸 써야지'하는 것들을 책에 적어두고 같이 회독했습니다. (예. 인력 수요 계획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한 이유에서 출발, 직무급 → 임금 체계가 중요한 이유에서 출발해서 Adams의 <공정성 이론>을 꼭 언급 등)

실제 모고 응시 시 이러한 부분을 적용함은 물론, 목차에 수식어를 붙이거나 부제를 다는 등으로 학원 모고에서 모범 답안으로 뽑히는 분들의 답안을 벤치마킹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2. 경영조직론 (64.32)

(1) GS1기 - '도장 깨기'식 공부

인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말반 인강 수강 후 진도 나간 범위를 3번 회독(①키워드 형광펜, ②백지 복습, ③목차 형광펜 작업) 했습니다만, 인사처럼 '생각'이 필요하진 않다고 느껴서 차근차근 암기를 해나갔습니다.

개념과 굵직한 A급 쟁점들은 다 암기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YM 연구소 제작 두문자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모든 부분에 두문자를 따게 되므로, 이때 미리 셀프 두문자도 많이 따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GS2기 - 단권화 작업하며 책&모고 암기

<목차 키워드>로 단권화 작업을 했으며, 매주 모고 범위를 3회독 하고 시험 치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응시한 모고 답안은 단권화 책과 함께 암기했습니다.

단권화 책을 회독할 때는 손바닥 사이즈의 무늬 없는 포스트잇에 도식을 함께 그리며 공부했습니다. 그래프의 상하좌우 축이나 애매한 생김새가 시험 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3기부터는 그럴 시간이 없으므로 이때 마지막으로 많이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조는 공부 시간과 점수가 비례하게 나오므로, 경조가 전략 과목이라면 다른 부족한 과목들이 있더라도 적어도 노동법과 비슷한 공부 시간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GS3기 - 밀빠진 독에 물 '계속' 채우기

기억력의 한계와 어마어마한 양으로 인해 끊임없이 밀빠진 독에 물을 빠르게 많이 채워야 합니다. 단권화 책과 모고를 무한 반복하되, 마지막으로 못 외운 내용을 반드시 암기해 내야만 합니다. 3기 이후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새로운 내용을 머리에 넣기 힘들고 알던 내용을 각인시키는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 못 외운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암기해야만 합니다.

이쯤 되면 회독할 때마다 너무 지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тотт)'인데, 싫어하는 파트부터 회독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싫어하는 파트를 뒤로 배치할수록 회독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수험 기간 어려움과 극복 방안]

1. 멘탈 지키기

모든 수험생이 그렇듯 가장 큰 어려움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회복탄력성이 낮은 편이라 '이게 되나?', '못 할 것 같다', '너무 부족하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등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에 할 일을 하라거나,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물은 끓지 않는다는 등 유명 인사들의 명언을 모아두고 보며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말자'는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안 되면 내 운명이 아닌 걸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적어도 노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서 나중에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다음 단계의 문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번아웃 현상이었습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이때는 친구를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진심 어린 위로/격려를 받았습니다. 타인에게 힘든 감정을 매일 전할 수는 없었기에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인스타툰을 팔로하고 스스로를 다잡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체력 지키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체력이 떨어지면 멘탈도 같이 망가집니다. 공부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딴짓 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수면 시간, 운동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수면은 일 7시간 이상, 운동은 주 1회 이상 해야 그나마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공부 시간, 집중 시간이 늘어나기에 체력 유지도 쉽지 않아집니다. 따라서 한약, 오쏘몰, 글루콤, 임팩타민 등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영양제와 보약을 활용해 체력을 잡아줘야 합니다. 모고를 치며 손목 통증도 발생하게 되는데, 병원에 갈 시간도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손목/팔꿈치 통증이 있는데 침, 주사, 물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아봤지만 집에서 하는 파라핀 치료기가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꼭 파라핀이 아니라도 손목 부위를 매일 찜질해주면 통증 감소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음에도 실제 시험을 치고 나오면서는 떨어질 것 같다 생각했고, 발표날까지 합격 확률은 50%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만이라는 분도 많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누구나 불안하고, 불안한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수험 자체가 끊임없이 내 부족함을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건 상당히 어렵고, 저 또한 한 번도 '이 정도면 합격하겠지'라는 확신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배운 점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멘탈과 체력적 피해가 상당했지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고, 운이 좋아서 합격에 더해 수석이라는 결과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힘들고 불안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쏟으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멘탈과 체력은 지키면서 건강히 완주해 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